

“내 살인에는 죄값이 따르지 않아”

‘시카고’ 뮤지컬 6년 만의 내한 공연
관능적 무대 속 숨겨진 사회풍자
서울 블루스퀘어서 8월 6일까지



뮤지컬 ‘시카고’ 포스터. 신시컴퍼니 제공

‘ROXIE ROCKS CHICAGO(룩시, 시카고
를 뒤흔들다)
내 이름으로 신문 1면을 장식한다면 어떨
까. 배우를 꿈꾸며 유명인이 되기를 평생 기
다렸던 ‘룩시 하트’에게는 다할나위 없는 기
쁨이었다. 비록, 내연남을 살해한 죄수로 실
렸을지라도.

유혹으로 가득한 1920년대 미국 시카고
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 ‘시카고’는 불륜 관
계인 남편과 동생을 죽이고 쿡카운티 교도
소에 수감돼 있던 보드빌(1890년대 중반부
터 193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 유행했던 노
래, 춤 등을 섞은 쇼) 배우 ‘벨마 켈리’, 내
연남 ‘프레드 케이슬러’를 살해해 교도소에
들어온 룩시 하트의 이야기를 그린다.

‘시카고’는 현재 브로드웨이 역사상 최장
기간 공연한 뮤지컬이다. 1975년 처음 뮤지
컬화돼, 1996년 리바이벌을 거쳐 공연을 이
어오고 있다.

2021년 브로드웨이 공연 25주년을 기
념해 기획된 투어 공연이 코로나19로 미뤄지
며, 지난해 10월부터 약 8개월간 북미 51개
도시 투어가 진행됐다. 지난달 27일부터는
한국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오리지널 내한
공연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공연이 시작되면 무대 중앙에 자리잡은

14인조 밴드가 눈과 귀를 사로 잡는다. 공이
어 흘러나오는 ‘시카고’의 대표 넘버 ‘올 댓
재즈(All That Jazz)’는 농염한 선율로 관객
의 시간을 1920년대로 돌려놓는다.

벨마를 비롯한 쿡카운티 여 죄수들은 바
람난 남편 또는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한다.
“살인은 했지만, 난 무죄야.”

특히, 간수 ‘마마 모튼’을 매수해 유능한
변호사 ‘빌리 풀린’을 선임한 벨마는 연일
신문에 등장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고 무죄
판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거액의 투어
공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때 룩시가 교도소에 등장한다. 돈이면
뒤통지 다하는 빌리에게 룩시는 아주 좋은
고객이 된다. 빌리는 룩시의 지난 세월을 거

것으로 꾸며 기자회견회를 열고, 그 안기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선다.

인론은 빌리에게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자극적인 소재,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
라면 너 나 할 것 없이 받아쓰기에 바쁘다.

또 다른 살인 사건이 터지며 룩시의 안기
는 거품처럼 꺼지고 만다. 사라진 관심에 낙
담하는 룩시와 이미 대중의 사랑을 룩시에
게 빼앗겼던 벨마는 각자애젠 자기 자신뿐
이라며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외친다.
화려한 조명과 의상, 관능적 춤과 음악으
로 무장했지만 ‘시카고’가 던지는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다.

‘시카고’는 교도소에 마저 돈이면 뒤통
지 할 수 있는, 살인까지도 무죄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을 보여 준다. 아무 죄책감 없이
‘스타’가 되겠다는 벨마와 룩시의 뻔뻔함은
놀랍기도 하다.

여기에 선정주의적인 저널리즘을 향한 비
판의식도 담겨 있다. 진실과는 상관 없이 그
저 살인, 불륜 등 자극적인 단어들로 버무려
진 기사를 전달하는 언론은 뒤뜰된 도덕관
과 물질만능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활개를
칠 수 있게 돕는다.

생각할 거리가 많은 내용임에도 극은 지
루하거나 처짐이 없다. 관객에게 직접 등장
인물들이 이야기를 건네는 듯한 연출과 유
머러스한 대사들로 140분의 러닝타임이 빠
르게 흘러간다.

25주년을 기념하는 오리지널 내한 ‘시카
고’는 8월 6일까지 서울 블루스퀘어에서 만
날 수 있다. 정경아 기자



“예술 가득 문화세상으로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부천문화재단, ‘공연페스타’ 축제 진행
종이팔찌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어린이 공연 ‘폴리팝’ 공연 장면. 부천문화재단 제공

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은 3일부터
7월 1일까지 부천시 시승격 50주년 기념 공연
축제 ‘공연페스타’를 진행한다. 1일 밝혔다.

‘공연페스타’ 기간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공연 2편과 연계 행사를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선보인다. ▲영아와 양육자를 위한 음악 공연
‘힐링 콘서트’(6.3)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미
디어아트극 ‘폴리팝’(6.17) ▲어린이 위한 체험
과 짧은 공연 ‘어린이 놀이터’(6.17)다.

먼저, 3일 열리는 음악 공연 ‘힐링 콘서트’는
24개월 미만 영아와 보호자의 문화권리를 높
이고 문화감수성 보충을 위해 기획됐다.

제트피아니스트 조윤성 등 여러 음악가들
이 출연해 아기에겐 생애 첫 라이브 음악을 들
려주고, 한국인 최초 시더 레이크 콘템포러리
발레단(Cedar Lake Contemporary Ballet
company)에 입단한 무용수 최수진이 아름다운
움직임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람료는 전액
무료다.

프로젝션 맵핑(물체 표면에 영상을 투사하
는 예술)을 이용한 미디어아트극 ‘폴리팝’은 오

는 17일 진행된다. 주인공 폴리라 폴라가 몬스
터와 함께 상상의 세계로 떠나며 펼쳐는 하룻
밤 여행 이야기를 담았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형 놀이와 장
난감을 무대예술로 연출해 온 가족 함께 즐길
수 있다. 관람료는 R석 3만 원, S석 2만 원이며
부천시민은 50% 할인받을 수 있다.

‘폴리팝’ 공연 당일 행사 ‘어린이 놀이터’도
함께 열린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 전후 서커
스, 마술 풍선쇼 등 ‘짹짹이 공연’과 종이 팔찌
만들기, 투병 부채 꾸미기 등 다양한 체험 프
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공연과 행사에 대한 상세 정보는 재단 누리
집과 공식 뉴미디어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경아 기자

‘만남’이 간직한 기억과 설렘... ‘6월의 랑데북’

경기아트센터, 8일 토크콘서트 개최
책·영화·음악이 공존하는 공연 선택



‘토크콘서트 : 6월의 랑데북’ 포스터. 경기아트센터 제공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는 오는 8일 소극장
에서 ‘토크콘서트 : 6월의 랑데북’을 공연한다.

‘토크콘서트 : 랑데북’은 ‘책, 영화, 음악이 함
께하는 공연’을 콘셉트로하는 경기아트센터 대
표 공연 시리즈다. 2023년에는 총 2회 공연이 예
정돼 있다.

이번 ‘토크콘서트 : 6월의 랑데북’에는 그동안
‘랑데북’ 시리즈 진행을 맡아온 이동진 영화평론
가가 함께한다. 또한 소설 ‘대도시의 사랑법’ 저자
박상영 작가, 소리꾼 이자람을 주축으로 활동하며
사랑 받는 아마도이자람밴드가 무대에 오른다.

출연진들은 ‘만남’을 주제로 각자의 다양한 기
억과 설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토크
후에는 아마도이자람밴드의 감성적인 공연이 이
여져 즐거움을 더한다.

또한 기존 랑데북 시리즈에서 보지 못했던 특
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경기도무용단 최은아 수
석단원이 공연 오프닝 무대를 장식한다. 현대적
인 감각과 해석을 담은 우리춤을 선보인다.

공연도중 관객들이 참여하는 ‘실시간 오픈 채
팅방’도 운영된다. 무대 위 출연진과 관객들이

공연 중 오픈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채팅창에 올라온 흥미로운 질문은 즉석에서 답
변을 받아 볼 수도 있다.

공연은 R석 3만 5000원, S석 2만 5000원으로,
예매는 경기아트센터 누리집과 인터파크 티켓에
서 가능하다. 정경아 기자

즐거운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들을 꿈꾸게 하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을 꿈꾸게 하는 즐거운 청소년활동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우리 지역의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에서 경험해 보세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재미있는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우리아가 참여하는 활동,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인지 신고를 한 활동인지 꼭 확인하세요!



경기도 Youth Services Center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송죽동) 2층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TEL 031)232-9383~5 FAX 031)232-9388 홈페이지 www.gysc.or.kr

SNS www.facebook.com/kgysc
블로그 blog.naver.com/kgyvc